

## 검사장과의 오찬

국민이 민생과 경제 걱정하고 대책세우는 정부와 검찰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초청했던 정부기관가운데 가장 낮이 익은 얼굴이 많습니다. 제가 법조계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그동안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연수원 기수가 인접한 기수들이 검찰의 지도부에 많아 특별히 안면이 많습니다. 반갑기는 하나, 대통령이 개혁도 이야기해야 하고 이런저런 요구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합니다. 오늘은, 오늘 아니고, 여러분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상황, 변화를 강력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의당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자존심상할 일인데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 보다 더 공정한 검찰권과 관련해 격려도 해주고 앞으로 우리 검찰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 여러분이 잘 하지만, 한마디 거들어 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런 본질적인 것보다 더 바쁜 게 있습니다. 특히 조폭 중심으로 민생침해 범죄에 각별히 대책 세우고 노력해주십시오. 7월이 지나면 수그러들겠지만 우리사회의 노사분규 등 집단행동이 많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게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잡는 집단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조직 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시간이 나면 그간의 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시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앞으로 대통령과 검찰관계가 어떤 관계가 가장 적절한 관계인지 시간이 넉넉하면 이야기합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대통령 때문에 검찰이 바로 서는데 어려움이 많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대통령을 보면 알레르기 생기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반대로 대통령이 검찰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다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경제와 민생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짧게 얘기하더라도 이것(경제와 민생)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길어도 여담입니다. 국민이 민생과 경제 걱정하고 대책세우는 정부와 검찰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민정수석실에서 적어준 것이 많은데 시간이 되면 제목이라도 불러주고 아니면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안정되고 희망을 가지도록 검찰이 앞장서십시오. 열심히 하지만 잘하라고 한 번 더 재촉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 뒤 여담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 해주십시오.